

조선시대 성 통제에 대한 보고

[서평] 이숙인(2014), 『정절의 역사』, 푸른역사, 424쪽.

이 지 영*

1. 머리말

이 책은 조선시대 국가적으로 이루어졌던 여성에 대한 성(性)통제의 역사를 밝힌 책이다. 저자는 『경국대전』 등의 법전, 『내훈』, 『여사서』 등의 여성교육서, 실록과 『심리록』 등의 판결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성 통제의 역사에 접근하고 있다. 저자가 인용하는 조선시대 ‘성 담론’과 ‘성 스캔들’의 이야깃거리는 여성 성 통제의 역사를 다채롭게 펼쳐 보인다.

2. 성 통제에 대한 네 가지 접근

이 책의 내용은 다루는 대상에 따라 크게 넷으로 나뉜다. 법전과 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국가의 제도를 고찰한 것이 1부이다. 2부에서는 법

* 안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률의 적용을 실록에 나타난 포상과 처벌의 기사를 통해서 살피고 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정절의 가치를 전달하는 각종 교화서류를 다루고 있으며, 4부에서는 간통사건의 처벌과 과부 실행(失行)의 소문을 둘러싼 여론을 중심으로 정절에 대한 상층 지식인의 인식에 접근하고 있다. 우선 각 부별로 서술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2.1. 정절에 대한 법률과 제도에 대한 고찰

이 책의 1부는 법전을 통한 여성의 성 통제 양상에 대해 살피고 있다. 여성의 정절을 강요한 국가의 통제에 접근하면서 저자가 중시하고 있는 바는 법전이나 교훈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의 조항 및 처벌의 양상이다. 금지의 조항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여성의 개가 금지이며 처벌은 간통사건의 경우에 해당된다. 개가 금지와 간통의 처벌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한 국가권력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먼저 여성의 개가 금지를 실행(失行)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시작한 양상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경제육전』과 『속육전』에는 세 번 개가한 여성을 ‘자녀안’(恣女案)에 기록한다는 조항이 보이는데, 『경국대전』에 와서는 ‘실행한 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국대전』이 완성되기 전인 세조 때에 ‘세 번 시집가는 행위’는 실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왕과 이를 실행과 같다는 신하들 간의 의견대립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이처럼 개가한 여성과 실행한 여성이 모두 자녀(恣女), 즉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로 인식되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저자는 실행(失行)의 정의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실행한 부녀의 소생이나 개가한 여자의 소생은 문반과 무반 모두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경국대전』에 명시됨으로써 과거의 응시가 제한되었던 서얼자손이나 관리 등용에서 제재를 받았던 장리(贓吏)와 동급으로 이해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족부녀로서 음

란한 행위를 자행하여 풍속과 교화를 어지럽힌 자는 그 간부와 함께 교형에 처한다.”고 한 『대전후속록』의 조목을 인용하면서 ‘음란행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을 사형에 처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저자는 성 범죄 처벌에 관한 자료도 많이 인용하고 있다. 먼저 향약 관련조항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간통 및 강간사건의 처벌 규정의 남녀간 불평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실록 및 『심리록』에 나타난 간통한 여성에 대한 처벌 사례를 통해서 실행의 처벌이 법보다는 상황에 좌우되고 있다고 하였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음행에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부장의 분노가 제도적인 장치로 지지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간통한 아내를 살해한 경우 관대하게 처벌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음행에 대한 남편의 분노가 국가권력과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고 하였다.

정절 부녀를 위한 포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수신전이 부활과 폐지를 거듭하다가 결국 폐지되는 과정을 실록 기사를 통해서 고찰하면서 과부의 정절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추이를 밝혔다. 또한 성적 폭력에 저항한 여성에 대한 격려를 『심리록』을 통해서 살피고 있다. 죽음으로 성폭력에 저항한 여성에 대한 정려(旌閭)와 복호(復戶) 및 성폭력 가해자를 살인한 여성에 대한 사면은, 성적 폭력에 직면한 여성의 현실을 살피지 못하고 이들을 이데올로기의 수용자로 찬양하면서 여성의 성을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2.2. 절부의 포상과 실행의 처벌

2부에서는 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절부로 표창을 받은 여성과 실행으로 처벌받은 여성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새 왕이 즉위할 때마다 절부를 표창하였는데, 저자는 표창의 근거가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이를테면, 조선 초에는 수절만으로도 절부

가 되었지만, 종종 조에는 ‘단지’(斷指)와 ‘할고’(割股)가 등장하는 등 좀 더 자극적인 사례를 표창하고 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정묘호란 중에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결한 여성에 대한 정표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종 때까지 남편을 따라서 자결하거나 겁간의 상황에서 자결한 여성에 대한 표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저자는 조선후기에 와서는 절부에 대한 정표는 사라지고 열녀만을 표창하고 있으며 하층여성까지 정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국가통치의 측면에서 주목한다.

저자는 열녀에 대한 포상이 무너진 강상윤리를 회복하려는 국가 경영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즉, 전란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서 죽은 여성들을 열녀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열녀가 아닌 사람을 허위로 보고하기도 하고 열녀 정려를 위해서 돈을 납부하기도 했던 세태 등을 예로 들면서, 저자는 열녀는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절부에게 정표를 내리는 것과 정반대로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간 여성이 가족들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점도 함께 다루었다. 이른바 ‘환향녀’와의 이혼을 허락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었고 이들의 자식은 환향녀를 어머니로 두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저자는 ‘실행’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행 부녀에 대한 처벌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실행담론은 때로는 여승의 상사(上寺)를 금지하여 불교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여성의 외출을 금지하는 근거로도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행’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을 통제하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했다.

저자는 ‘실행’이 여성을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로 후손의 벼슬길에 미친 영향을 들었다. 그리고 조화의 아내였다가 개가한 김씨의 사례는 실행이 자녀의 관직서용에 지속적인 걸림돌이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렇

게 연좌제는 국가가 사대부 부녀의 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말한다.

2.3. 정절의 가치를 전달한 교훈서

3부에서는 유가적 가치의 전파를 위해 국가가 간행한 행실도류와 여성의 학습과 교화를 위해 간행된 교화서류에서 정절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고찰하였다. 대표적인 행실도류인 『삼강행실도』에서는 정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결하거나 살해된 여성의 사례가 많다. 『삼강행실도』가 축소되어 간행된 『산정보 삼강행실도』, 이를 다시 보완한 『속삼강행실도』, 임란 이후 전란 중에 죽은 여성의 사례를 대폭 수록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와 『동국삼강행실도』, 그리고 산정보과 『이륜행실도』를 합친 『오륜행실도』까지. 정절을 위해서 죽은 여성의 사례는 행실도를 통해 찬양되고 권장되었다고 하였다.

사례를 중심으로 정절의식을 전달하는 행실도류와는 달리 교화서류는 ‘지식과 논리’로 정절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저자가 주목한 교화서는 『열녀전』, 『예기』와 『소학』, 『내훈』 및 『계녀서』, 『여사서』, 『사소절』 등이다. 이 중 『열녀전』은 조선시대 다른 여훈서에도 많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열녀전』에 수록된 정절여성의 사례가 다수 『삼강행실도』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열녀전』의 정절여성은 조선시대 열녀의 원형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예기』와 『소학』은 “남성 지식인의 여성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205면)고 하여 함께 묶어 고찰하였다. 『예기』는 여성의 재혼을 ‘신의가 없다’고 해석하거나 남녀의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등 가족관계의 유교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소학』은 『열녀전』에 등장하는 절의를 지킨 여성들의 이야기를 재수록하면서 절의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남성 지식인들에게 각인시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책은 여성의 교육서로도 강조되면서 주요 교화서로 자리잡았다 고 설명하고 있다.

『내훈』과 『계녀서』는 각각 시어머니의 마음과 친정아버지의 마음에서 지은 것이라는 점에서 함께 고찰하였다. 『내훈』은 『소학』, 『열녀』, 『여교』, 『명감』 등의 앞선 교화서의 글을 가려 뽑은 편찬서이다. 저자는 『내훈』에 “부인이 두 번 시집할 수 있다는 글귀는 없다”는 『여계』의 구절이 포함된 것을 근거로 여성이 개가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일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계녀서』의 경우에는 여성이 실제로 지켜야 할 일을 적고 있을 뿐 특별히 정절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친정아버지의 입장에서 딸이 시집살이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본래의 교훈에 충신했다고 해석하였다.

『여사서』는 청나라 왕상이 『여계』, 『여논어』, 『내훈』, 『여범첩록』을 하나로 묶고 주석을 붙인 책으로, 조선에 들어와 영조 때 언해되어 간행되었다. 저자는 각 책마다 정절과 관련한 구절을 하나하나 고찰하였는데, 『여계』의 ‘전심(專心)장에서 아내는 남편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여논어』에서는 수절을 중시하면서도 정절의 대상을 남편에서 가족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명나라 인효문황후의 『내훈』이 왕가와 사대부가 여성을 독자층으로 상정한 만큼 정절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반면, 『여범첩록』에서는 고통스럽게 절개를 지키는 ‘정(貞)’과 슬퍼하며 삶을 버리는 ‘열(烈)’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면서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덕무의 『사소절』에서는 일상에서의 몸가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선비는 행실을 처녀와 같이 해야 한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정절의식이 내재화하여 일상의 예절로 정착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저자는 또한 남녀모두에게 적용되었던 ‘정절’의 개념이 성별에 따라서

의미가 분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논했다. 저자는 『주역』의 “妬女壯, 勿用取女”에 대해 “한 음(陰)이 다섯 양(陽)을 만났으니 부정”하다고 한 주희의 주석을 “하나의 음이 다섯 양을 만났다는 것은 한 여자가 다섯 남자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해석”(227면)한 것이라 보면서 ‘정’(貞)이 점차 여성의 순결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사회에서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면서 남녀관계를 지나치게 성애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2.4. 여성의 정절에 대한 사대부 남성의 인식

4부에서는 간통 사건과 과부의 음행 소문을 둘러싼 여론의 추이와 정절에 대한 논쟁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먼저 15세기 유감동과 어을우동 간통 사건을 둘러싼 당대 조정의 여론을 통해서 간통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간부들에게는 관대하였던 당대 권력의 편향된 시선을 밝혔다. 그리고 두 사건에서 음녀로 지탄받았던 여성의 처벌이 달랐던 점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간통사건의 처벌이 주로 국왕의 성향에 따라 달라졌다고 하였다.

진주의 하종악의 후처와 관련된 음행을 둘러싼 논란은 그동안 학계에서 퇴계학과와 남명학파의 갈등원인으로 주목받은 사건인데, 저자는 이를 ‘소문 구성’의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과부가 된 사족 여성에 대한 은밀한 소문을 두고 퇴계와 남명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를 저자는 소문에 기반한 도덕정치를 추구하는 조선의 통치방식에서 찾았다. 즉 “이들의 소문 개입 행위는 악을 물리치고 선을 권장하는 유자(儒者)의 사회적 의무이자 사회적 실천행위”(285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소문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학연이 권력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15세기 개가금지법 논쟁과 조선시대 지식인의 열녀담론

을 다루었다. 개가금지법과 관련된 논쟁은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는데, 첫 번째 논란은 성종 8년(1477)에 과부의 개가금지 조항을 『경국대전』에 넣을지의 여부를 두고 벌어졌다. 저자는 당시 조정에서는 많은 대신들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개가를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거나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개가한 여성의 자손의 벼슬길을 막는 방식 즉 ‘재가녀자손금고법’으로 사족 여성의 개가가 금지되었고 이를 근거로 재가한 여성의 후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두 번째 논쟁은 과부의 개가를 허락해달라는 송헌동의 상소로부터 촉발되었다. 저자는 두 차례 논쟁에서 드러난 개가금지법 제정론자와 개정론자의 논리를 비교하면서, 전자가 개가를 실행(失行)과 실절(失節)과 동일시하면서 의를 강조하는 논리를 내세운 반면, 후자는 재이론(災異論)을 무기로 삼아 상황과 인정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유교적 지식인이 사유하는 방식과 맥락이 단일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의 논쟁이 “과부의 실제 삶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상층부 지식인들의 이데올로기 논쟁의 성격이 강하다”(324면)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열녀의 사례를 다수 거론하면서 여성의 죽음을 ‘열’로 포장하는 당대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의리를 위해 죽음을 택한 열녀를 칭송한 조선 지식인이 사실상 “자신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죽음을 장렬하고 아름답게”(327-328면) 꾸몄다는 것이다. 또한 정절을 위해 죽음을 택한 하층 여성의 사례를 교화의 증거로 내세웠다고 하였다. 열녀에 대한 당시 지식인의 찬양은 결국 “열녀의 절개와 자신의 지도를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강상윤리에 근거한 조선의 정치권력을 지지하는 것”(343면)이라고 하였다. 다만, 저자는 열녀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한 연암 박지원과, 남편을 따라 죽은 것이 진정한 열인가에 대해 비판한 다산 정약용과, 열녀를 말류의 폐단이라고 한 혜강 최

한기의 논의를 거론하면서 이들 18세기 지식인의 성찰적 자세를 높이 평가하였다.

3. 성에 대한 억압과 욕망, 그리고 주체

정절을 키워드로 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리 낯설지 않다. 조선시대 ‘열녀’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몇 년 전에 나온 강명관 교수의 『열녀의 탄생』¹⁾과는 상당부분 대상 자료나 논지가 겹치고 있다.

강명관 교수는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열녀’의 이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통시적으로 살핀 바 있다. 고려 말 의부(義父)와 짝을 이루던 절부(節婦)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절부만 남아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정절이 장려되는 과정, 조선전기 『소학』과 『삼강행실도』, 『내훈』 등 교훈서를 통해서 여성의 행동규범을 만들어지는 과정, 『동국삼강행실도』 유포를 분기로 하여 절부의 표창이 열녀의 표창으로 변화하는 과정 및 열녀의 보편화 과정,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계녀서>류를 통해서 여성의 일상까지도 의식화하는 과정,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강압적이고 타율적인 열녀가 증가하는 현상들, 비판적 지식인들의 글에 나타난 열녀담론의 비판과 한계까지.

그렇기에 자료의 측면에서 이 책은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여성의 성 통제를 제도와 지식, 사건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여성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조선의 제도와 이념을 비판적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지점을 찾기 어렵다.

1) 강명관, 『열녀의 탄생-가부장제와 조선 여성의 잔혹한 역사』, 돌베개, 2009.

다만, 강명관 교수가 ‘열녀’를 사대부 남성에 의한 교화와 그 결과로서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절의 역사』에서는 여성의 죽음이 사대부 남성에 의해 열녀로 포장되었음을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서 기록의 주체였던 사대부 남성과 기록 대상자였던 여성을 구별하여 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점은 실록에 기록된 절부 혹은 열녀의 사례에 대한 해석에서 잘 나타난다. 강명관 교수는 남편을 따라 죽는 여성에 대한 실록의 사례가 『삼강행실도』를 위시한 윤리서적의 보급으로 인한 의식화의 결과라고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수많은 사례를 의식화 과정이라는 선명한 논리로 설명한 것이다. 반면 『정절의 역사』에서는 남편이 죽자 따라 죽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질병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손가락을 자르거나 허벅지의 살을 베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를 여성의 의식화의 결과로 단정하지 않고 국가가 정치에 활용하였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 역시도 ‘절부’와 ‘열녀’로 기록된 여성의 실상에 접근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절부’나 ‘열녀’로 죽은 여성의 실상이 실록의 기록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저자의 추정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죽음이 의식화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자연스런 슬픔으로 인한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이는 이 책 역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사대부 남성의 기록을 중시했다는 데서 기인하는 듯하다. 실록과 『심리록』, 『삼강행실도』 등은 사대부 남성의 목소리만을 담고 있기에 여기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찾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자료의 문제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절을 주제로 여성의 역사를 구상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여성 그 자신의 말이나 글로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나마 전해오는 것은 가족적 삶에 대한 서술이나 문학작품 또

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학술적 글쓰기류 등이다(367면).

저자가 말하듯이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자료는 남성의 기록에 의해서 턱없이 적다. 그러나 “그나마 남아 있는 자료”조차도 거의 거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여성의 목소리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자료는 구비전승되는 문학텍스트나 한글기록들이다. 구비설화나 서사민요, 각종 한글기록과 한글소설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자료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구비설화에서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훼손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²⁾ 이를 통해서 구비설화가 담고 있는 여성의 열의식은 사대부 남성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한글필사본 자료도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자료들이다. 한글 자료를 보면 여성이 사대부 남성의 논리에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사대부 여성이 즐겨 읽었던 한글대하소설에서는 정절이 오히려 여성의 주체성 실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하게 된다. 예컨대 자신을 무시하거나 예우하지 않는 남편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여주인공들은 남편의 동침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이러한 소설 속 여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정절의 논리가 오히려 여성의 주체성의 방어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저자가 말하는 자료의 문제는 연구대상을 법전, 실록, 『심리록』이나 문집 등으로 한정된 탓이 아닌가 한다.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가 한글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의 목소리를 한문텍스트가 아닌 한글텍스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과부의 개가 금지’를 둘러싼 당대의 담론을 성의 억압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조선 후기 야담에는 사족 집안의 과부가 몰래 개가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주로 남성이

2)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 월인, 2006.

주인공이 되어 과부가 된 여성을 아내나 첩으로 맞이하는 이야기들이 다.³⁾ 아리따고 젊은 과부와 통정하여 첩으로 맞게 되는 이야기(<고담(古談)>), 부유한 사대부 집안 과부 딸을 첩으로 맞아 출세한 남자 이야기(<태학귀로(太學歸路)>), 과거보는 길에 부유한 서민 과부와 결연한 남자 이야기(<마(馬)>) 등이 그러하다. 야담에서 과부가 당시의 사회적 금기를 깨고 혼인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야담의 향유자인 사대부 남성이 특별히 더 열린 생각을 했기 때문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에는 과부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대부 남성의 시선과 욕망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이를 따져보면 과부의 개가 금지가 과연 여성의 성을 억압하는 부정적 기능만 하였는지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혼인의 결정이 당사자가 아닌 부모와 집안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과부의 개가는 오히려 당사자의 고통이 되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개가를 금지하는 법적 조항은 여성의 삶을 규제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성을 억압하였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과부가 자유롭게 개가할 수 있었던 고려시대나 조선 초라고 해서 여성의 성이 자유로운 사회는 아닌 듯하다. 개가를 원치 않는 여성에게 개가를 강요하는 것 역시 억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 여성은 성적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부의 개가를 금지하는 법적 규제도 없고 과부의 개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심리록』에 실린 사건과 유사한 강간사건은 오늘날에도 자주 발생한다. 몇 년 전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는 군대 내 상관에게 성폭행 당한 여군이 결국 자살한

3)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상』, 일조각, 1973 참조.

사건도 있었다. 조선시대 성폭행 피해자들은 ‘열녀’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지만, 오늘날 이들은 성폭행 피해자로만 기억된다. 이들이 자살한 이유는 분명 교훈서 학습의 결과는 아닐 것이다.

저자는 조선시대 지식인이 남녀의 관계를 지나치게 성애적 시선으로 보았다고 비판하였지만, 사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욕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남성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한다. 남녀의 관계를 성애적 시선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남녀의 관계에서 성애적 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조선사회의 남성지식인들이 여성의 성 본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조선 후기 야담을 보면 과연 그러했는지 의문이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여성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도 의문이다. 여성의 성 본능을 인정한다고 해서 성적 자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에게만 ‘정절’을 강요한 조선사회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오늘날 우리사회나 여성의 성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아마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권이 타인에 의해 존중되지 못한다는 점일 것이다.

